

책으로 복원한 한국연극사의 거목

서울에대출판부 펴냄 「동랑 유치진 전집」

한국 근대연극사의 거목이자 '뜨거운 상징'인 故 東朗 유치진씨(1905~74)의 전집 전9권이 서울에대출판부에서 출간됐다. 유족측의 주도로 82년 초 발간위원회(유민영·윤대성·이대주·유덕형)가 구성된 후, 상재되는 데 10년의 세월이 소요된 이 「동랑 유치진 전집」은 그의 희곡은 물론 주례사와 조사에 이르기까지 글로 남겨진 모든 자료를 망라했다.

제3권까지는 희곡 32편이, 제4·5권에는 시나리오 16편 및 각색작품 3편, 라디오 드라마인 「룸펜 인텔리」와 가면극 「산대놀이」, 소설 「幻影」 「屍人船」이 수록됐으며, 제6~8권에는 '연극론' 외 기타의 글모음이, 마지막 권에는 고인이 口述하고 유민영씨가 받아 정리한 「자서전」과 서간문 모음집과 연보가 실렸다.

글로 된 모든 자료 망라돼

이번 「전집」은 작품량에 있어서 우리 연극 사상 기념비적인 것이거니와, 「토막」 「소」 등의 작품으로 신파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본격적인 사실주의 연극 시대의 지평을 열어놓은 것을 필두로 끊임없는 자기갱신을 통해 근대 연극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간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해 본격적인 재조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창작, 연출, 이론, 극장 경영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전분야에 걸쳐 선구자적 업적을 남긴 그에 대한 학술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들이 집대성된 셈이기 때문이다.

유치진씨에 대한 평가작업은 지금까지 그의 10周忌 추모제 행사와 지난 91년 '연극의 해'



전9권으로 상재된 「동랑 유치진 전집」.

의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돼 대표작 공연과 유품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등 행사지향의 국부적인 것이었음에 비해 전면적이고도 본격적인 평가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전집」 제1권에 동랑의 삶과 예술을 정리한 「거대한 문화인-동랑의 인간·사상·예술」을 쓴 유민영 단국대 예술대학장은 그 글에서 "개척적인 일만을 했"으며 "구석구석 연극진흥을 위해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굵직한 일을 많이 해놓은 거목"인데, 그중 리얼리즘 극의 단초 마련으로부터 사극의 정립, 민족극의 육성 보호, 국립극장 설치, 드라마센터 건립, 연극 이론 확립, 우리 연극의 해외선양, 전통극의 부활과 현대적 계승, 연극교육의 토대 마련 등을 업적으로 손꼽는다.

특히 '전통극의 부활과 현대적 계승'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생소한 그의 업적이면

서도 기실 그의 전생애를 통해 탐구한 문제였음이 드러나 주목을 끈다. 1935년 「朝光」에 발표했던 「조선연극의 앞날」은 연극인으로서 전통연희에 관해 논한 첫번째 평론이며, 그의 마지막 논문 역시 전통예술의 대중화 문제를 거론한 「가정과 학교를 위한 간단한 인형극」인 것. 이러한 입장은 50년 창극대본인 「가야금유래」 발표, 62년 드라마센터 설립 후 '가면극회' 창립, 서울 예전 창립 후 탈춤 과목의 정규 학과목 채택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연극의 다빈치적 인물로 평가돼

"희곡을 문학으로서 뿌리박고 희곡문학의 정착을 처음으로 이룩"한 것으로 문학사에 서술되는 그의 연극인생은 1928년 18세 소년으로 동경 유학생 시절 관동대지진 후 로망 롤

랑의 「민족연극론」을 읽은 후 시작됐다고 「자서전」에서 저자는 밝힌다. 귀국 후 연극의 브나로드 운동인 '行裝극장'을 통해 '운동으로서의 연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의 '공격적 연극운동'은 청년시절 '반란의 쇄발(亂角)'이라는 아호를 가졌던 점, 대표작 「소」의 마지막 장면을 放火로 설정했다는 점 등을 통해 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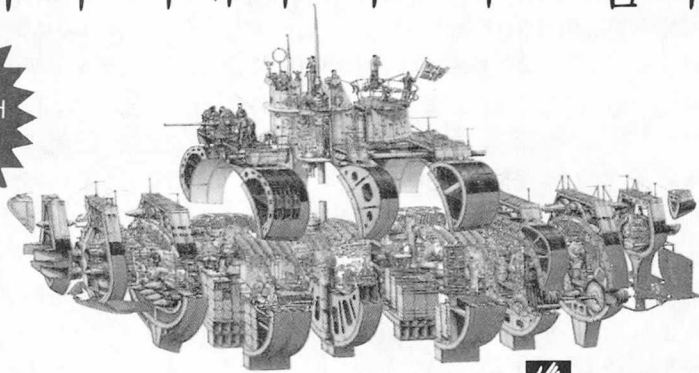
민족이라는 절대 명제와 짝을 이루며 진행된 그의 활동은 그러나 40년 일제의 압력에 의해 「흑룡강」 등의 '친일작품'을 생산케 되어 생애 최대의 치욕을 남긴다. 그러한 이력은 이외의 모든 업적에 대하여도 자책과 회한을 남긴 듯, 「自序」에서 "이 전집은... 나로서는 가슴 아픈 기록"이라 적어놓았다.

한국연극의 "다빈치적 인물"이라고 회자되는 유치진씨가 또한 "연극계의 춘원 이광수"로 불리는 것은, 계몽기에서나 가능한 '다방면의 천재'임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역사의 파란만장함에 의한 또 한 사람의 희생자였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 하겠다.

— 김종식 기자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림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동시 출판된 초특급 베스트셀러!



탱크, 점보 제트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지금까지 걸 모습만 보아 왔던 거대한 구조물 187지를 가로 세로로 세밀하게 잘라, 그 내부의 구조며 명칭을 아주 자세히 보여 주는 희한한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부터 건축·미술의 전문가까지 누구나 한 번은 꼭 봐야 할 이 시대의 뛰어난 가족형 그림책 「크로스 섹션」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울컬러·양장본/ 책크기 27cm×36cm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